

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 : COVID-19 이전과 이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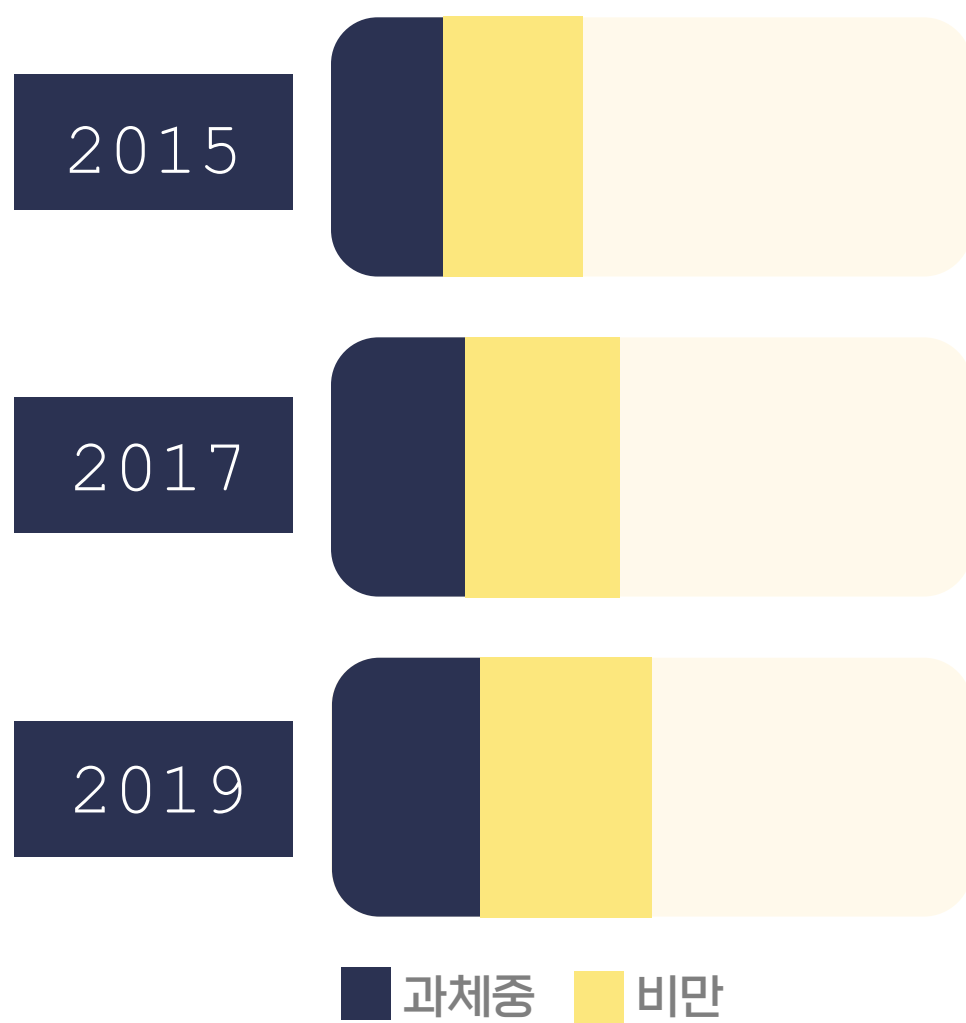
Hye Ji Kim ¹⁾, Hyekyung Woo, Ph.D. ¹⁾ [†]

¹⁾ Dept. of Health Administration, Kongju National University, Chungcheongnam-do, Kongju 56,

[†]hkwoo@kongju.ac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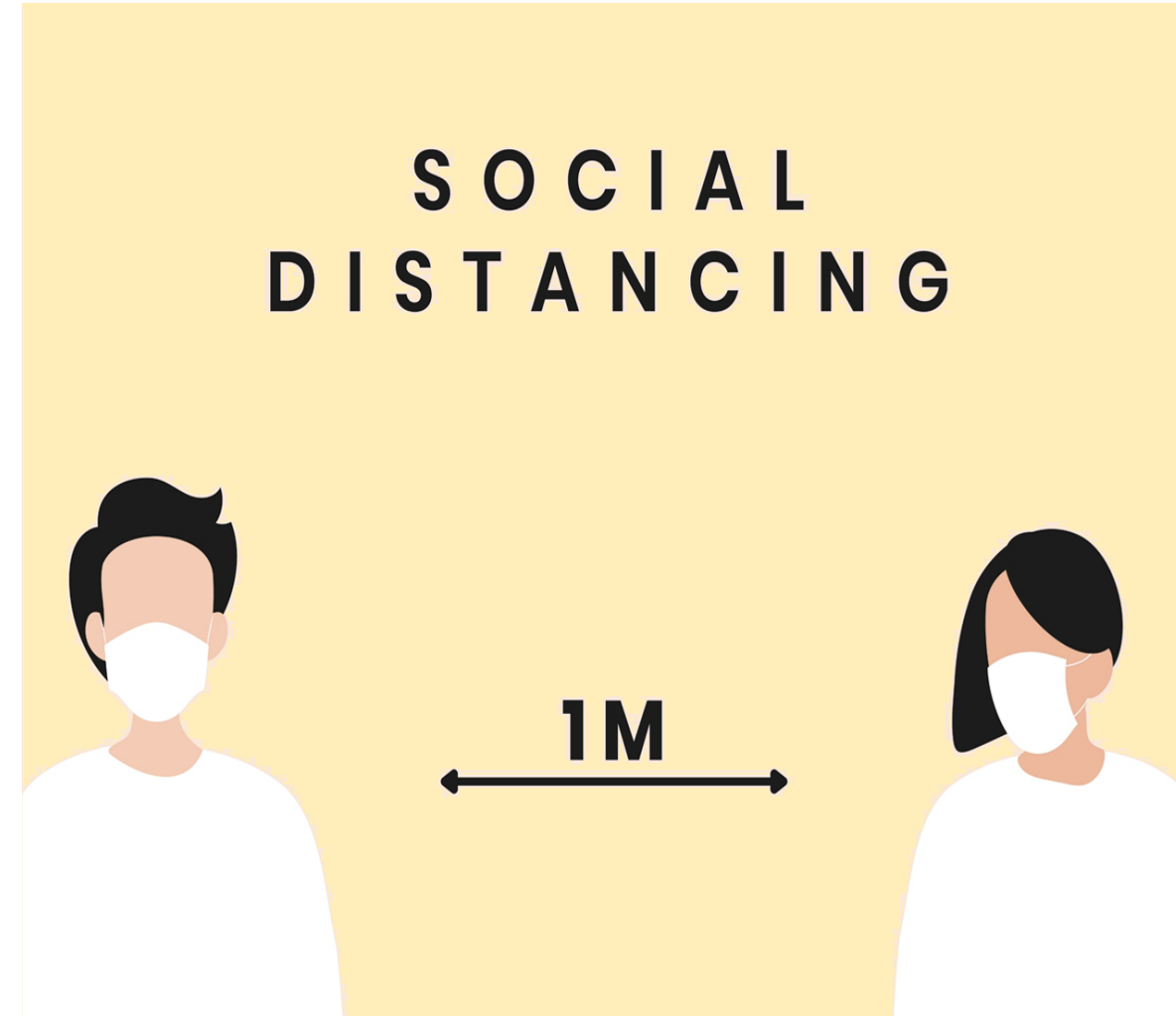
BACKGROUND



청소년 **비만 및 과체중** 비율 매년 증가

비만 증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시됨

COVID-19 사회적 거리두기



- COVID-19의 확산 방지 위한 개학 연기와 **등교 중지**
- 수업은 자택 내 **원격 교육**으로 대체

- **식습관 불균형** 초래
- **신체 활동량 감소**

COVID-19 팬데믹 전후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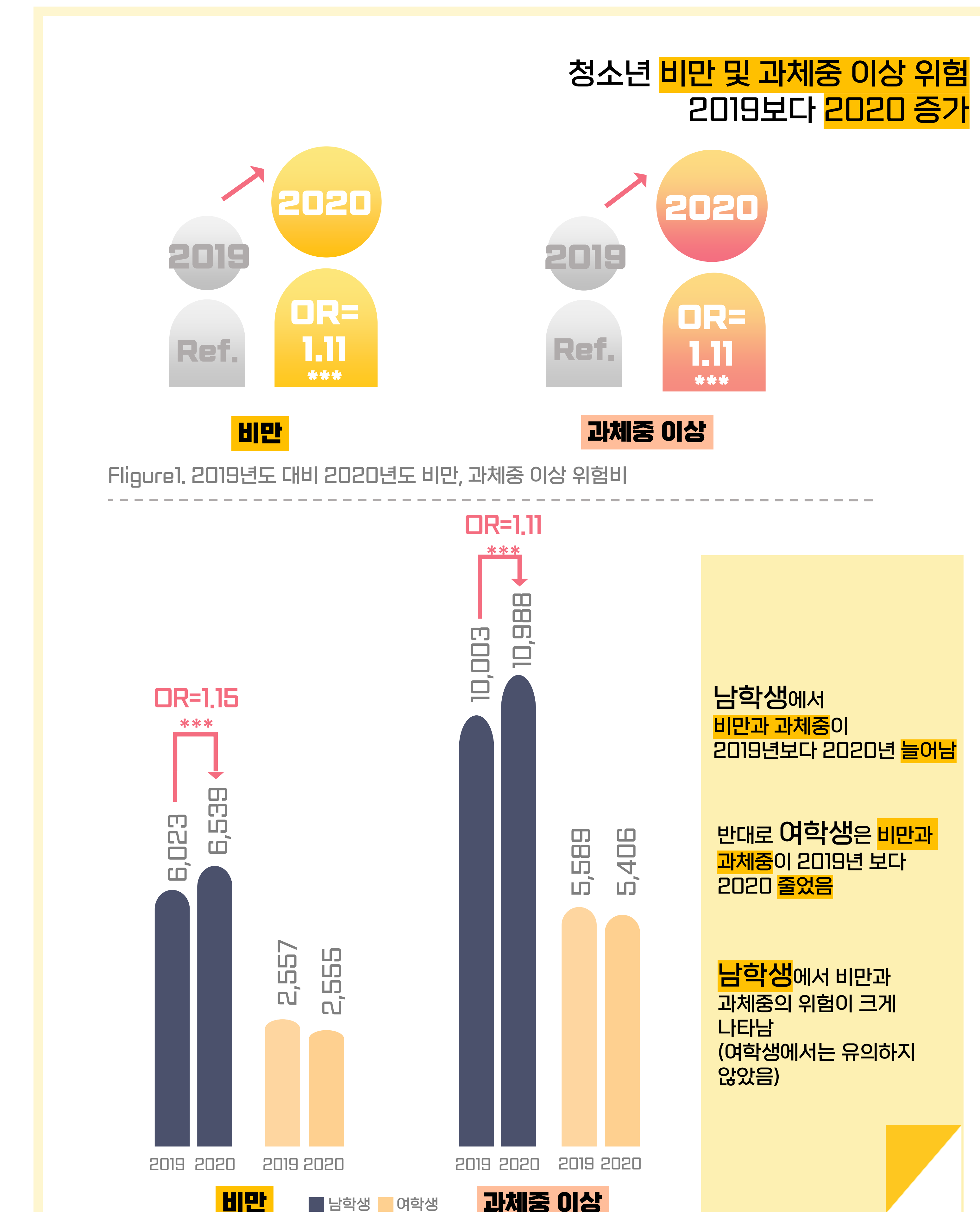
- 비만 및 과체중 현황 비교
- 비만 및 과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

청소년 **비만 예방**을 위한 **건강행동의 실천방안**을 모색

METHOD



RESULTS



		비만		과체중 이상	
		2019	2020	2019	2020
요인	먹지 않았다	1.36 (1.23-1.50)	1.27 (1.16-1.39)	1.25 (1.15-1.35)	1.28 (1.18-1.40)
	패스트푸드				
	주 1~2번	1.19 (1.11-1.28)	1.17 (1.09-1.26)	1.14 (1.07-1.21)	1.15 (1.08-1.22)
	주 3번이상				
	하지 않았다	1.22 (1.13-1.33)	1.11 (1.03-1.20)	1.10 (1.02-1.18)	1.03 (0.97-1.10)
	하루60분 이상 운동				
요인	주 1~2번	1.18 (1.10-1.27)	1.07 (0.99-1.16)	1.10 (1.04-1.17)	1.06 (0.99-1.13)
	주 3번이상				
	불건강하다	1.69 (1.58-1.81)	1.71 (1.60-1.83)	1.44 (1.36-1.53)	1.40 (1.32-1.48)
	주관적 건강인지				
	건강하다				

Figure3. 비만 및 과체중 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

비만과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

남학생에서는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할 수록,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지 않을수록,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비만 및 과체중 위험이 증가

여학생에서는 체중조절노력을 하지 않을수록,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할 수록 비만 및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

CONCLUSION

- COVID-19 팬데믹 상황으로 일상적 생활패턴의 변화가 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 위험 증가에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짐
- 식습관 변화와 신체활동의 감소는 비만 및 과체중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
- 성별에서 비만위험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(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비만 및 과체중에 취약)
-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 및 과체중에 취약한 집단에 우선 순위를 두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함